

# 한국신문에 실린 아동양육에 관한 기사내용분석( I )

—1920년대와 1930년대의 동아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The Content Analysis of Childrearing Articles in the Korea Central Daily Newspapers:  
Focusing on Donga ilbo and Choseun ilbo from 1920's to 1930's.—

서울대학교 소비자 아동학과

시간강사 신 양 재

영동전문대학 여성교양과

전임강사 김 영 주

Dept. of Consumer & Child Studies, Seoul National Univ.

Lecturer Shin Yang Jai

Dept. of Wemen's Education, Yongdong Junior College

Full-Time Instructor Kim Young Ju

## 〈 목 차 〉

I. 서론

II. 내용분석

III.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 〈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ideas about childrearing represented in the Korean central daily newspapers. The method used for this study is the content analysis and the data are Donga ilbo and Choseun ilbo from 1920's to 1930's.

It is found that the contents of childrearing articles were concerned on enlightening childrearing practices during the beginning twentieth century of Korea. They claimed to replace traditional childrearing by western practices in the pregnancy-delivery, nurturing, teaching, disciplining and interfacing between home and institutional education of school. Also, they put great emphasis on changing from an adult-centered manner to a child-centered manner in the childrearing. In conclusion, these articles played an important part as the enlightening instrument trying to bring about internal reforms in opposition to Japanese imperialism.

## I. 서론

### 1. 연구문제

兒童養育(childrearing)은 흔히 育兒, 社會化와 상호교환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용어로,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와주기 위하여 필요한 여러가지의 적절한 물리적 보살핌과 애정어린 협력을 제공하는 노력을 의미하는 개념으로 인식되어 왔다(유안진, 1992).

이 아동양육의 과정은 아동발달에 관하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概念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아동이 때맞추어 성취해야 할 발달 내용이 무엇인지, 성장에 영향을 주는 조건이 무엇인지, 아동이 보이는 행동을 평가·진단하는 기초로서 이 개념이 작용하기 때문이다(Goodnow, 1982). 아동의 양육을 담당하거나 관여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개념들에 근거하여 자신의 양육행위를 결정하며, 이것에 의하여 양육자로서의 자신에 관한 만족감이나 유능감을 느끼기도 한다.

이들 개념은 각 개인이 속한 사회문화적 특성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각 시대와 각 사회는 제 나름의 문화적 특수성을 지니고 있고, 이 특수성이 그 시대, 그 사회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동기나 욕구 및 성취를 결정하며 가치관, 세계관을 이루고 이것은 그 사회문화성원이 될 아동을 양육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다(유안진, 1992).

아동에 관한 社會歷史的 接近의 연구에서 아동에 관한 개념은 역사적으로 변화해 왔고, 이들 개념은, 아동 양육, 학교교육, 일터에 보내는 방식에 나타난 변화와 연관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Ariès, 1962; Kessen, 1979). 이러한 관점에서는 아동양육의 성격이나 방식은 그 개인이 속한 실제 역사적 시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다.

Duvall(1946)은 좋은 모성에 관해 사람들이 지닌 개념을 조사한 결과 전통적 개념과 현대적 개념의 두 범주를 구분해 내었다. 그에 의하면 전통적 개념에서는 모성이 다소 엄격한 보육과 통제의 역할을 강조하고 물리적 보육에 초점을 둔데 반해, 현대적 모성 개념은 엄격성보다는 융통성있게 아동의 발달

을 격려하는 정서적 기능에 역점을 둔 개념정의가 나타난다고 한다. 이와 유사하게 Connor(1954)는 아동 및 부모에 대한 개념을 전통과 현대적 관점에서 비교했는데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아버지 개념을 가족에 대한 경제적 지원, 아동의 훈육, 좋은 모범의 역할로, 어머니 개념을 가정의 관리, 요리, 종교를 심어주고 좋은 모범을 보이는 역할로, 아동은 부모를 존경하고 순종하는 역할로 정의하는 반면, 현대적 관점에서의 아버지 어머니 개념은 스스로 가정 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아동과 다른 가족성원의 성장과 발달을 강화시키는 역할로, 아동은 성격과 사회적 발달의 모든 영역에서 성장을 이루어나간다는데 초점을 두어 정의한다고 하였다. Gilbert와 Hanson(1983)은 현대 미국사회의 부모 역할에 특징적인 지각 영역을 조사한 결과 인지발달, 사회성 발달, 정서처리, 신체발달, 규범과 사회가치, 개인위생, 생존기술을 교육시키는 교육(teaching)영역, 건강관리, 의식주, 정서적 욕구, 일반보육의 기본욕구충족(basic need), 가족 단위 및 사회제도에로 연결시키는 사회연계영역(interface with society)의 세 가지 주된 영역으로 체계화하였다. 유안진(1992)은 출산책임자 역할, 신체 심리적 보호의 역할, 적절한 훈육 책임자의 역할, 동일시 모델의 역할, 자녀의 상담자 및 친구의 역할을 부모가 갖는 일차적인 아동양육역할로 꼽고 있다. 사회역사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아동양육의 각 영역이 갖는 의미와 비중은 사회역사적 맥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다.

현대사회에서는 아동의 복지를 가치롭게 여기며 아동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가족, 학교, 사회봉사단체 등의 다양한 사회제도를 마련함으로써 이 가치를 실천해가는 兒童中心의 社會이다. 또한 아동기는 이후의 삶에서 충분히 기능할 수 있는 준비와 교육의 시기이며, 위험과 불안으로부터 보호되는 행복한 시기로서 처음에는 가족성원에 의해서 아동 자신의 욕구와 필요를 충족하고 이후에는 다른 사회제도가 더욱 확대된 사회 제 영역에 의해서 도움을 받는 연령단계로서 본다(Bigner, 1979). Ariès(1962)는 이런 아동에 관한 개념을 근대역사의 산물로 보았다. 그는 중세사회에서는 아동기를 고유하

게 보는 어떠한 개념도 없었고, 아동기에 적합한 독자적인 어떠한 문화적 제도도 뒷받침하고 있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중세말에 이르면서 아동에 대한 개념이 형성되는데, 이를 계기로 하여 아동은 약한 존재이므로 누군가에 의존해야 하고 누군가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도덕관념을 발생시켜 근대 가정의 출현을 가져왔으며, 아동은 때문지 않은 순수성 때문에 어른들의 세계로 부터 격리, 통제되어, 교육받아 구제되어야 한다는 교육심성을 발생시켜 근대 학교 출현의 기반으로서 작용했다고 본다(이시재, 1988).

아동양육에 관한 개념이 사회역사적 과정에 영향을 받는다는 이러한 경험적 검증은 서구사회의 역사 과정을 중심으로 진행된 연구로, 다른 사회역사적 상황은 겪어온 한국사회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극히 미약한 수준이다. 국내 관련 연구를 보면 조선시대의 아동훈육법과 발달단계에 관한 연구(류점숙, 1987, 1989)가 있으나 이것은 문헌 중심의 연구이고, 시대사회적 배경을 조건으로 하여 일반인의 실생활 경험을 중심으로 한 유안진(1980, 1981, 1983, 1985, 1986, 1990)의 전통사회에 관한 연구를 제외하고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 그러므로 전통사회 이후 근대사회로 전환해 가는 도정에서 우리나라의 아동양육에 관한 개념에 어떤 변화가 진행되었는가에 관한 고찰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아동양육의 변화과정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신문을 비롯한 매스미디어의 기능상의 특징은 정보, 사상, 관념, 문화 등 인식의 생산과 전파라는 측면을 지닌다(이준우, 1987). 특히 신문의 특징은 정기적으로 발행되며, 그것을 보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에 접근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이 소수의 특정 집단이 아니라 모든 대중에게 관심있고 다양하며 時宣的이며, 발행이 계속된다는 점이다(차배근, 1991). 이처럼 신문 기사 보도는 그 신문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상황을 대상으로 하여 대중들과 밀접한 연관을 맺으면서 계속 발행된다는 점에서 한국사회의 역사적 상황과 관련지어 아동양육 인식의 변화추이에 관한 규명을 가능하게 해준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고는 먼저 1920년에서 1940년

에 폐간되기까지의 동아·조선일보를 중심으로 신문에 나타난 아동양육 관련 기사를 분석하고자 한다. 1920년대는 韓國文化史 측면에서 볼 때 삼일운동 이후 일제의 武斷統治로 인한 식민지 통제가 완화되어 각 방면에서 新文化 運動이 활발히 전개된 시기이다. 1930년대는 이처럼 활발해졌던 신문화운동이 일제의 대륙침략과 이른바 비상사태에의 돌입으로 말미암아 가혹한 탄압을 받기 시작하였고 황국신민화 정책으로 민족말살정책이 시행되었던 시기이다. 당시의 신문화운동은 종래의 봉건적 구습을 타파하고 서구의 신문화를 섭취하는 운동을 말하는 것이다. 일제하의 이 신문화운동은 곧 독립운동의 의미를 지닌 것이다(조용만, 1982).

韓國新聞史에서도 이 시기의 신문을 식민정책에의 저항과 실력배양을 위한 계몽운동적 특성을 지닌 때로 구분한다. 그 당시 동아·조선일보가 민족의 실력배양을 위한 계몽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것은 언론의 뛰어남을 수 없었던 벽인 식민통치의 대전제내에서 민족언론이 할 수 있었던 민족의 자주독립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대안이었다고 볼 수 있다(유재천, 1990). 따라서 동아·조선일보는 그 당시 생활의 다양한 측면에 관한 서구의 신지식을 보고 전파하는 중심적 역할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가정생활의 전근대적인 구습개혁을 위해서 동아·조선일보는 1920년대 후반부터는 "가정"이란 전면표제를 세워 가정생활 전반에 관한 문제를 다루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 당시의 가정란에 실린 기사의 내용분석을 통해 첫째, 신문기사에서 아동양육에 관하여 어떤 내용들을 보급하려 했는지를 알아 보고, 둘째, 그 당시의 신문화 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된 구습의 계몽적 차원에서 신문기사가 작성되어 전통사회의 관행과 대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신지식의 관점으로 전통적인 아동양육에 있어 어떤 점들을 문제시하고 있는가를 살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문제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아동양육 개념이 어떠한 변화과정을 거쳐 현재의 아동양육의 개념을 형성하였는지의 일면을 파악해 보고자 한다.

## 2. 연구방법

1920~1930년대의 신문에 나타난 아동양육의 내용 규명을 위해 내용분석방법을 택했다. 내용분석은 특히 커뮤니케이션 연구에서 많이 활용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본 연구의 대상인 신문을 분석하는데 유용한 방법이라고 여겨진다. 내용분석에 있어 객관성과 체계성의 확보는 과학적 연구의 중요한 요건이 된다(차배근, 1990). 본 연구에서는 객관성과 체계성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랐다.

(1) 분석대상선정: 본 연구에서는 1920~1940년까지 동아·조선일보에 실린 기사중에서 사실 보도 기사와 광고를 제외한 내용 중에서 가정관을 중심으로 아동양육에 관한 기사를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분석한 아동양육기사는 총 2,157건으로 이것은 육아 수기를 제외한 나머지이다. 특히 동아·조선일보의 두 일간지를 분석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이들이 본격적인 근대신문으로 1920년 창간 이후 정간이나 일제말기의 폐간기를 제외하고는 현재까지 계속 발행되고 있으며, 전국 규모의 중앙지이면서 권위지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이다.

(2) 분석유목선정: 아동양육을 Nye(1976), Duvall(1946), Gilbert & Hanson(1983), 유안진(1992) 등의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임신·출산유목, 보육유목, 훈육유목, 교육유목, 상담유목, 학교제도연계유목, 일반유목의 7개의 주제분류유목을 선정하였다. 이들 분석유목을 기준으로 하여 관련 기사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주제를 따랐고, 그렇지 않고 종합적인 주제를 다룬 기사는 일반유목에 분류하였다. 각 주제분석유목들은 다시 여러 개의 하위영역으로 나뉘는데 분석유목과 하위유목들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임신·출산영역은 태내에서 태아의 발달을 도모하고 건강하게 출생시키고자 하는 노력으로서 임신에서 출생까지의 과정에서 행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 하위영역으로는 태교영역, 유전영역, 임신일반 및 임신중관리영역, 출산 및 산후관리영역, 산아제한, 피임법, 아들·딸의 조절에 관한 출산조절영역 5 하위영역이 있다.

보육유목은 신체적·심리적 기본육구와 필요를 충족시키는 활동을 의미한다. 하위영역에는 아동의 의식주문제를 다룬 물리적 육구충족 영역, 아동의 건강 및 위생에 관한 내용을 다룬 건강·위생관리영역, 아동의 심리정서적 육구충족과 보호에 관한 정서적 육구충족영역, 그리고 아동의 신체발달과정, 아동학대 등의 일반 보육에 관한 발육일반영역 등 4 하위영역이 있다.

교육유목은 아동의 제반 측면 즉 신체적·정서적·지적·사회적 측면의 발달을 위한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하위영역으로는 아동의 신체 및 행동의 발달을 위한 의도적 활동인 신체적 영역, 아동의 감정표현 발달을 위한 의도적 활동인 지적 영역, 아동의 사회적 관계의 적절한 형성유지에 필요한 아동의 능력발달을 위한 의도적인 활동인 사회적 영역과 이밖에 놀이발달지도영역, 특수아 교육 영역을 합쳐 모두 6하위영역이 있다.

훈육유목은 아동에게 개인·가족·사회에서 요구되는 여러가지 규칙, 규범, 가치 등을 내면화시켜 정신적·행동적 습관을 형성시키는 의도적 활동을 의미한다. 하위영역으로는 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습관형성에 관한 기본생활습관형성영역, 사회에서 요구하는 행동기준의 내면화에 관한 사회규범 내면화영역, 성공적인 훈육을 하는 방법에 관한 훈육방법영역의 3하위 영역이 있다.

상담유목은 부모가 자녀의 발달과정 중 결정적인 시기에 야기되는 문제나 갈등에 관해 조언을 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을 의미한다. 하위영역으로는 사춘기의 신체생리·심리학적 변화에 대처하도록 도와주는 성상담영역, 이성교제에 관한 연애상담영역, 졸업후 취업 결혼에 관한 진로상담영역 등 3하위영역이 있다.

학교제도연계유목은 아동을 일반 사회의 제도인 학교시설과 연결시키는 교량적 활동을 의미한다. 하위영역으로는 입학시험, 입학후 학교적응의 문제에 관한 입학영역, 학교생활과 연관된 가정내 지도영역, 학교교육의 필요성과 가정 학교간의 연락 및 협력에 관한 가정·학교협력영역, 유치원 교육영역 등 4 하위영역이 있다.

일반유목은 아동양육의 문제를 특정한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다루지 않고 여러 유목에 걸쳐 종합적으로 다룬 기사를 여기에 포함시켰다.

(3) 분석단위선정: 신문 등 커뮤니케이션 내용분석에서 흔히 사용되는 분석단위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2,157건이나 되는 방대한 분량인 관계로 기사(item)를 분석단위로 하였다. 본 내용분석은 먼저 신문의 지면에 나타난 기사중에서 아동양육에 관한 기사를 추출해 내는 작업을 수행하였고, 그 다음에 추출된 아동양육에 관계되는 기사를 분석유목에 의해서 분류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두 단계로 진행하였다. 신뢰로운 분류를 위해 연구자들은 몇 건의 견본 사례를 가지고 사전토의를 통하여 분류기준을 확정한 후에 분류작업을 하였다.

(4) 자료 처리: 자료는 각 분석유목 및 하위영역별로 해당하는 기사건수의 빈도와 백분율로 처리하였다.

## II. 아동양육관련기사의 내용분석

### 1. 전체개관

1920~1930년대의 동아·조선일보에 실린 아동양육관련 기사를 주제분석유목 및 하위영역으로 내용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 참조)

주제유목별 내용을 보면 보육을 다룬 기사가 894건(41.4%)로 월등히 높고, 그 다음으로 임신·출산 기사가 347건(16.1%), 학교제도연계 기사가 321건(14.9%), 교육 기사가 246건(11.4%), 혼육 기사가 237건(11.0%), 상담 기사가 44건(2.0)의 순서로 다루어 지고 있다. 이 분포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은 아동양육 중에서 보육에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Duvall(1946)이나 Conner(1954)의 분류체계에 비추어 볼때 아동양육에 관한 시각이 전통적 개념을 중요시 하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표 1) 아동양육관련기사 주제영역 및 하위영역별 빈도

주제영역	하 위 영 역		총계(%)**
	영 역	빈도(%)*	
임신출산	태교	15(4.3)	347 (16.1)
	유전	15(4.3)	
	임신일반 및 임신중관리	198(57.1)	
	출산및 산후조리	90(25.9)	
	출산조절	29(8.4)	
보 육	물리적 필요충족	216(24.2)	894 (41.4)
	건강위생관리	518(57.9)	
	정서적보호	66(7.4)	
	발육일반	94(10.5)	
교 육	신체발달	32(13.0)	246 (11.4)
	정서발달	62(25.2)	
	지적발달	64(26.0)	
	사회적발달	11( 4.5)	
	특수아지도	15( 6.1)	
	놀이지도	62(25.2)	
혼 육	기본생활습관	87(36.7)	237 (11.0)
	사회규범내면화	85(35.9)	
	혼육방법	65(27.4)	
상 담	성상담	3( 6.8)	44 (2.0)
	연애상담	13(29.5)	
	진로상담	28(63.6)	
학교연계	입학	152(47.4)	321 (14.9)
	가정내지도	104(32.4)	
	가정학교협력	14( 4.4)	
	유치원	40(12.5)	
	기타	11( 3.4)	
일 반			68

\* 유목내에서 하위영역이 차지하는 비율

\*\* 전체에서 각 유목이 차지하는 비율

### 2. 임신·출산

임신출산유목내 영역분포는 태교기사는 15건(4.3%), 유전기사는 15건(4.3%), 임신일반 및 임신중 관리기사는 198건(57.1%), 출산 및 산후조리 기사는 90건(25.9%), 출산조절 기사는 29건(8.4%)으로 임신일반

및 임신중 관리문제를 가장 중요시하였다. 기사에서 다루어진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태교에 관한 내용은 태교의 의의, 태교의 방법, 전통태교에 관한 비판적 평가의 내용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 중 태교의 방법으로 대부분 임신부의 정신적인 평화와 안정유지를 중요시하는 내용이 많았고 이를 의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유전에 관한 내용은 유전의 원리, 유전의 변이성, 유전병의 문제점과 타개책, 쌍둥이 출산과 유전 등이다. 이 중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는 것은 유전병의 문제점과 그 대책에 관한 것으로 유전병에 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면서 그 대책으로 배우자 선택시 혈통과 가계조사와 같은 세심한 고려를 해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임신 및 임신중 관리의 대부분의 내용이 의학적 지식에 기초를 두고 다루어지고 있는데, 내용은 모성에 대해 임신의 의의 강조, 생리와 임신, 임신과 계절, 임신진단, 모체의 변화와 태내발달, 임신중 관리, 임신중 이상증세, 불임에 관한 내용이다. 이 중에서 임신중 관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그 당시 출산율이 높는데 비해 영아 사망율이 높았고 생존한 아동이라도 대부분 체질이 허약한 아동들이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이러한 문제점은 바로 정상적인 태내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임신부의 영양 및 건강관리의 합리화를 이루고자 했던 의도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의도는 특히 임신중 관리내용이 월등히 높은 빈도로 나타나고 있음에서 보여진다.

출산 일반 및 산후관리도 내용 대부분이 의학적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다. 내용은 출산에 관한 미신 타파, 출산연령, 출산일, 출산준비, 분만, 산후조리 등으로, 분만과 산후조리가 가장 많은 내용을 차지하고 있다. 분만과 산후조리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임신중 관리내용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이유와 같은 것으로 영아사망을 뿐만 아니라 분만시 부주의로 인한 지체아동 발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분만에 관한 의학지식을 널리 보급하고자 하였을 것이며, 아동양육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모성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산후조리의 필요성과 방법을 알리고자 한 의도가 나타나고 있다. 출산조절은 산아제한의

의의와 방법, 출산조절방법, 남녀아조절 등이 다루어지고 있다. 소수이기는 하나 산아제한 문제가 1920년대부터 거론되었다는 것은 흥미있는 사실로, 기사내용의 변화를 보면 1920년대초에는 서구사회에서 추진하는 산아제한을 생소해하면서 소개하고 있다.

### 3. 보 육

보육유목내 영역분포를 보면 물리적 필요충족 기사는 216건(24.2%), 건강·위생관리 기사는 518건(57.9%), 정서적 보호기사는 66건(7.4%), 발육일반 기사는 94건(10.5%)으로 건강·위생관리 문제에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사에서 다루어진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물리적 필요충족 기사에서는 의식주 세 측면과 유모에 관한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는데, 의생활에 관한 기사는 소수로, 조선 아동의 의복이 자유성을 잃거나 너무 덥고 동여맨 부분이 많음을 지적하고 따라서 아동의 의복을 간편하고 자유롭게 입히고 또한 얇게 입힐 것을 권하고 있다. 식생활에 관한 기사는 수유, 이유, 음식 및 영양에 관한 것으로, 수유에 관한 기사에서는 모유가 가장 이상적임을 지적하고 모유를 수유하는 방식을 소개하면서, 모유를 먹이는 방식으로 조선의 어머니가 너무 자주 젖을 먹이고 한꺼번에 많이 먹이며 특히 잘 때 끼고 누워서 먹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모유를 먹일 때는 시간을 맞추어 규칙적으로 먹이고 또 가능한 한 모유를 먹이되 반드시 초유를 먹일 것을 권하고 있다. 특히 조선의 풍습에 아이를 낳자마자 복 있는 여인(아이를 많이 낳은 여인)의 젖을 먹이는데 이것은 아동으로부터 초유를 앗아가는 미신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 밖에 인공영양 방법이 다루어지고 있다. 이유에 관한 기사는 위장장애에 대한 주의와 영양이 충분한 이유식 준비에 관한 것이고, 영양 및 음식에 관한 기사에서는 아동의 영양이 어른중심의 식단으로 인해 아동의 영양이 불량하고 따라서 아동의 사망률이 매우 높음을 지적하고 불량한 영양상태를 개선하는 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주생활에 관한 내용은 소수로, 내용은 아동의 독립심을 존중하여 아동실을 가능한

따로 마련해줄 것을 권하고 있다. 유모에 관한 기사도 소수로, 사람 선택과 그들을 다루는 법에 관한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다.

건강 및 위생관리에 관한 것으로, 진단에 관한 기사는 주로 아동의 울음을 통해서 아동의 필요나 욕구 혹은 병 유무 판단에 관한 지식을 다루고, 진단하되 함부로 조치하지 말고 반드시 의사에게 보일 것을 권하고 있다. 질병에 관한 기사가 가장 많이 다루어지고 있는데, 이처럼 질병에 관한 기사가 중요시되고 있는 것은 그 당시 조선 아동사망율이 높았던 바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한 예로 1938년 당시 5세 미만의 소아사망율이 21.26%에 이르고 있었다. 질병의 치료에 관한 기사는 각 질병을 집에서 치료하는 방법과 응급처치방식을 다루고 있는데, 주목할 만한 것은 집안에서 함부로 조치하지 말고 반드시 의사에게 보이는 것을 대개 권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기서 1920~1930년대에는 신식병원이 설립되기 시작하면서 전통적으로 가정에서 행해지던 민간요법이나 무당에 의한 치료가 경원시되고 치료의 기능을 병원이라는 사회적 기관으로 이양해야 한다는 주장을 발견할 수 있다. 아동의 건강관리 기사도 높은 빈도로 다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은 조선 아동의 사망원인이 약질이어서 크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기사 내용에서 지적하고 있다. 아동의 위생에 관한 기사도 중요시 다루어지고 있는데, 목욕, 땀띠, 기생충, 구강위생에 관한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다. 아동의 안전에 관한 기사는 소수로, 날카로운 장난감이나 물건을 조심할 것, 넘어지거나 목에 걸리는 것에 대한 조심 등이 다루어지고 있다.

심리·정서적 보호에 관한 기사는 아동의 공포심, 신경질, 과보호, 금지, 이해, 자율심 장려에 관한 내용으로, 그중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것은 아동의 신경상태에 관한 것으로 이에 대한 보육을 중요시 하고 있는 것은 당시 임신이나 출산에서 부터 어머니의 부족한 영양과 체력의 부족으로 약질의 아동이 태어나므로 이를 보완하고자 함으로 볼 수 있다. 발육일반은 발달과정에 대한 정보, 일반적인 자녀 보육에 관한 정보, 아동학대에 관한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는데, 아동학대 기사는 소수이나 아동분위의 가

정, 사회적인 차원에서 아동보호(사회보호시설, 급식제도, 무료치료소, 아동학대방지법 등의 확립)를 제시하고 있다.

#### 4. 교육

교육유목내 영역분포를 보면 신체발달 도모를 위한 기사가 32건(13.0%), 정서표현발달을 위한 기사가 62건(25.2%), 지적 발달을 위한 기사가 64건(26.0%), 사회성 발달을 위한 기사가 11건(4.5%), 특수아 지도에 관한 기사가 15건(6.1%), 놀이발달지도에 관한 기사가 62건(25.2%)이다.

기사에서 다루어진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신체발달을 위한 기사는 운동의 필요성과 방법, 신체발달을 위해 자연과 친화될 필요성과 그 방법에 관한 내용 등이 있다. 정서적 측면은 교육유목중에서 중요시 다루어진 영역으로, 감정교육의 의의, 감정의 순화 및 융화를 위한 예술교육, 허영심조절, 질투심조절, 싸움으로 나타나는 공격성 조절 등이 다루어지고 있다.

지적 발달을 위한 기사도 중요시하고 있으며, 기억력, Piaget의 인지조작능력 등 지적 능력 발달에 관한 소개 및 발달지도의 내용, 글자습득, 언어학습, 책·신문·동화등의 읽기, 산술 등의 지적 기능 발달도모에 관한 내용, 지적 발달 평가에 관한 지능검사, 지적 발달에 있어서 아동의 질문이 갖는 중요성과 거기에 반응하는 방법에 관한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다. 내용의 분포에서는 지적 발달에서 읽기, 산술과 같은 기능적 측면이 강조되었으며 아동의 질문이 갖는 발달적 의의를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많이 나타났다.

사회성 발달에 관한 기사는 소수로, 다른 영역과 비교해 볼 때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내용으로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품성에 관한 내용, Piaget의 도덕성 발달, 성격유형분류 등이 있다.

특수아 지도에 관한 기사는 지체아동의 원인과 양육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정신지체아, 언어지체아, 신체지체아가 다루어졌고, 천재아동 지도에 관한 내용도 소수 다루어지고 있다.

놀이에 관한 기사는 아동놀이가 갖는 의의를 신체 발달 도모, 정서함양, 호기심, 창조력, 상상력 등의 지적 발달 도모, 사회 역할 학습, 사교성 등의 사회성 발달 도모 등의 측면에서 다룬 내용과 이런 취지에서 놀이감 선택의 방법을 소개하는 내용, 영화선택 요령, 그밖에 연령에 따른 놀이 발달, 실내놀이 방법 등이 다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 다루어진 것은 그 당시 조선에서는 아동의 놀이 심리나 놀이가 아동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지식이 없이 놀이나 장난없이 그저 얌전하고 조용하게 지내는 아동을 칭찬하는 현실을 문제시하여 아동놀이에 관한 지식 보급의 차원에서 이를 기사화한 것으로 보여진다.

## 5. 훈육

훈육유목내 영역분포를 보면 기본생활습관 형성에 관한 기사가 87건(36.7%), 사회규범의 내면화에 관한 기사가 85건(35.9%), 훈육방법에 관한 기사가 65건(27.4%)가 나타나고 있다.

기사에서 다루어진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기본생활습관 형성에 관한 기사에서는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여 편식을 삼가하는 등의 좋은 식습관 형성, 대소변 가리기, 목욕·세수·이 닦기 등의 청결한 생활습관 형성, 존칭어 사용, 인사하기 등의 예절형성, 규칙적인 시간관념 등을 생활화하는 습관, 용돈사용, 절약, 검소에 관련되는 경제적인 생활 습관 형성, 옷입기, 물건 정리하기, 자기 방 치우기 등 자신에 관한 일을 스스로 하는 자조 습관 형성 등의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다. 문제점으로 많이 지적된 내용으로는 어머니나 주변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아무 때나 돈을 주어 군것질을 하게 하여 식습관, 경제적 습관 형성을 나쁘게 하고, 그 다음으로는 과잉보호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조차 하지 않게 내버려둠으로써 남에게 의뢰하는 나쁜 버릇을 형성하게 하는 부유층 가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사회규범의 내면화에 관한 기사에서는 민족의식고취, 거짓말, 도벽지도, 성 도덕 지도, 비행문제가 다루어지고 있다. 아동의 거짓말 지도에 관한 내용은 무조건 나무라는 것이 아닌 아동기 특유의 공상, 자

기방어심리, 벌에 대한 공포, 자제력 결여 등의 아동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여 엄격한 처벌위주의 금지가 아닌 말로 타이르고 부모가 먼저 아동에게 거짓을 보이지 않는 모범이 되도록 권하고 있다. 아동의 도벽지도에 관한 내용은 도벽이 군것질에 돈을 쓰는 버릇에서 비롯되므로 돈 사용을 삼가하게 하고 정확한 경제 관념이나 소유관념을 말로서 잘 가르쳐 줄 것을 권하고 있다. 성도덕에 관한 내용은 성에 대한 교육을 하여 도덕적 지침을 세우는 것이 성을 비밀에 부침으로서 호기심을 불러 일으켜 순결을 잃게 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권하는 한편 여학생의 품행에 관한 주의를 강조하고 있다. 청소년의 비행 및 범죄에 관한 내용이 비중있게 다루어지고 있는데, 그 당시 거짓말, 술, 담배, 가출, 절도, 폭력, 성범죄 등의 소년소녀 비행이 상당히 문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원인으로는 내적 면에서 소년 소녀들의 충동성, 허영심, 동조성, 반항심을 지적하였고, 외적 요인으로는 빈곤, 가정의 불화, 부모의 방임, 입시의 병폐, 실업, 불안한 사회 분위기를 지적하고 있다. 소년소녀비행 문제가 상대적으로 비중있게 다루어진 것은 그 당시의 사회불안과 경제적 빈곤 등의 사회상황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훈육 방법에 관한 기사는 그 당시의 아동훈육에 있어서 욕을 하고 때리는 식의 지나친 억압적 훈육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에 대한 개선 요구, 이와는 반대로 무조건적인 과잉사랑의 문제 지적과 개선 요청, 물질적 보상에 주의하고 적절한 보상과 칭찬방법의 사용, 그당시 훈육의 비밀관성에 대한 지적과 개선 요청, 아동심리를 알고 그들의 권리와 자유를 존중하고 이해와 동정심에 입각하여 훈육할 것을 권하는 아동 중심의 훈육 강조, 행동의 모범으로서 훈육할 것을 권장하는 내용 등이 다루어지고 있다.

## 6. 상담유목

보통학교 교육이 끝난 13세 이상의 아동 지도의 문제를 다룬 상담유목 내의 영역분포를 보면 진로상담에 관한 상담 기사가 28(63.6%)건, 연애상담에 관



한 기사가 13건(29.5%), 성상담에 관한 기사가 3건(6.8%)이 나타나고 있다. 기사에서 다루어진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여학생과 남학생을 구분하여 졸업한 여학생은 졸업후 일년간 집안 살림을 가르쳐 시집보낼 것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이 많고, 졸업한 남학생의 진로지도에 관한 기사는 보통학교를 졸업한 13세 이상의 아동의 직업선택에 대한 것으로 그 내용은 장점과 소질을 발견하여 직업을 선택하도록 할 것과 진학하는 학생일 경우 상급학교 선택방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연애상담에 관한 기사는 청춘남녀의 지도방법으로 보통학교의 졸업과 관계없이 청년기(13~17세) 자녀를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에 관한 것으로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하여 여성의 정조를 중시하여 감독할 것을 강조하는 한편, 지나친 방임과 속박은 좋지 않으며 이해를 바탕을 할 것을 강조하고 있어 전통적인 남녀관계관을 유지하려는 지도와 현대적인 자율, 자유개념이 서로 상치되어 나타나기 시작했다.

성상담에 관한 기사는 주로 여성의 월경에 대한 것으로 월경의 중대성을 강조하면서 월경의 시기, 대처방식, 출혈의 분량, 조심할 내용 등이다.

## 7. 학교제도 연계유목

학교제도 연계유목내의 영역분포를 보면 입학 및 입학준비에 관한 기사가 152건(47.4%), 가정내 지도에 관한 기사가 104건(32.4%), 유치원 교육에 관한 기사가 40건(12.5%), 가정과 학교와의 협력 필요성에 관한 기사가 14건(4.4%), 기타 11건(3.4%)로 나타나고 있다.

입학에 관한 기사는 이 유목중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험철 학교를 선택할 때의 주의점, 구두시험에 대한 대비, 시험치는데 부모와 아동이 주의할 점, 수험장에서 태도 등에 관한 입학시험 준비에 관한 기사와 신입 아동을 위한 입학준비에 관한 기사로 이것은 학교교육에 관한 내용중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상대적으로 비중있게 다루어졌다. 이 내용으로는 학교생활에 필요한 습관들이기, 준비물, 학교생활에 필요한 인지적 준비, 부적응

아동을 지도하는 방법, 학비에 관한 것이다. 가정내 지도에 관한 기사는 가정내 생활지도, 학습지도, 방학지도 등을 다루고 있는데, 생활지도는 나쁜 버릇의 교정, 규칙적인 생활습관의 형성, 학용품 주는 방법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학습지도는 성적이 나쁜 아동지도, 가정교사의 폐해, 참고서 선택법, 복습지도 등이며, 방학중 가정에서의 지도는 집안일을 돕게 할 것, 규칙적인 생활을 하도록 할 것, 남녀학생이 모여 놀지 말게 할 것, 좋은 동무를 사귀게 할 것 등의 생활지도, 신문 잡지등을 읽힐 것, 복습을 하게 할 것, 일기 쓰기, 그림그리기 등의 학습지도, 방학중 건강관리, 개학준비에 관한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다.

가정과 학교의 협력은 부모가 매월 학교를 방문하여 학교와 연락할 것, 가정과 학교가 같은 방침을 위하여 협력할 것, 학교에서 부모에게 바라는 것, 가정에서 학교에 바라는 것 등이 있다. 이 시대의 가정과 학교와의 연계에서 특별한 점은 학교에서는 일본선생이 일본말로 가르치고 집에서는 쪽진 엄마가 조선말로 이야기 하는 데서 교육의 문제점이 생긴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러한 학교제도에 대한 가정의 연계역할의 강조는 한편으로는 신문기사가 일제지배체제에의 귀속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했다는 점을 짐작하게 해준다.

유치원교육에 관한 기사는 유치원 교육의 목적, 유치원 교육의 시기, 유치원 교육에서 지향하는 아동상, 유치원 교육의 내용, 당시 유치원 교육의 현황이 다루어 지고 있다. 유치원 교육의 목적으로 기사에서 지적된 바에 따르면 조선 가정과 같이 무규율한 데서 좋은 습관을 가르치는 곳으로 지식을 가르치기 보다는 품성과 습관을 기르는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어린 아이를 보호하여 학교갈 준비를 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고 있다. 유치원 교육의 시기는 3~6세로 보고 있으며 지향하는 아동상은 유희하는 아동, 자유로운 아동, 활동적인 아동을 지향하면서 착하고 순한 아동을 바라는 조선 부모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 8. 일반유목

일반유목에서 다루어진 내용을 보면, 먼저 아동에게 있어 환경 특히 가정환경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사(7건), 아동양육에 있어서 부모의 책임과 중요성에 관한 내용(22건)에 관한 기사에서는 특히 모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모성교육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또한 조선사회는 생활이 성인중심적이어서, 민족발전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아동이 무시되어 온 것이 문제로, 준비기에 있는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개성에 따라 양육을 하며 생활에서도 아동이 중심이 될 것을 주장하는 내용(30건)이 비교적 많이 나타나고 있어 아동중심의 현대적 아동양육관이 강조되어 소개되기 시작했다.

그밖에 적서차별의 문제(4건), 남아존중에 의한 여아차별의 문제(4건), 어머니의 취업정당화(1건) 등이 기사화되고 있다.

## Ⅲ.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우리나라 아동양육 변화과정의 일면을 규명해 보고자 사회역사적 관점을 가지고 근대사회의 과도기적 성격을 띠고 있는 1920~1930년대의 동아·조선일보의 신문기사를 내용분석하였다.

아동양육 관련기사의 논지를 이루고 있는 것은 국력이 약해져 외세의 지배하에 놓이게 된 것은 조선 내부에 문제가 있고 그것의 하나가 아동양육에 있다고 보고, 이에 개화된 서구의 아동양육을 받아 들여 민족개선에 힘써야 한다는 것으로, 계몽교육의 차원에서 기사를 작성한 것이다. 서구의 양육 관점으로 볼 때 조선에서는 아동 본성이나 발달에 관하여 너무 무지하고 성인중심의 생활이 대부분이어서 아동만을 위한 배려가 없이 무시되며 보호받지 못하고 있기에,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여 민족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 아동양육에 관한 새로운 지식 즉, 아동이 중심이 되는 양육을 보급하여 생활화시키고자 하는 내용들이 신문에 나타난 아동양육 관련기사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에 관하여 각 분류유목 별로 나타난 주제 및 특징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임신·출산유목에서는 그 당시 사산률 및 영아사망률이 높은 것은 조선 어머니들이 임신·출산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지식의 결여로 보고 이를 개선하고자 임신·출산에 관한 의학적 지식을 보급하고 생활화시키려는 내용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보육유목에도 마찬가지로 나타나, 과학적 지식의 도입을 강조하여 수유의 시간과 양의 규칙화, 영양개선, 의료기관을 이용한 질병치료와 예방, 위생관리 등의 개선을 보육영역에 추진시키려 하는 내용이 전체 신문기사에서 가장 비중있게 다루어지고 있다.

둘째, 교육유목의 내용 분포를 보면 정서 발달, 지적발달, 놀이지도의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지적발달에서 읽기, 산술, 글자습득 등의 기능적 측면이 강조되는 경향과 아동의 질문, 아동 정서의 특성, 놀이심리 등이 갖는 발달적 의의를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아동 자체의 특성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여 가정에서 아동을 위주로 하는 교육을 하도록 일반에 계몽시키려는 의도의 결과라 볼 수 있다.

셋째, 훈육유목에서 나타난 경향을 보면 기본생활 습관 형성에서 전통사회 생활규범으로서 강조되던 존칭어 사용, 인사와 같은 예절 부문은 상대적으로 적게 다루어지고 있고 경제성, 자조성이 부각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이는 그 당시 신문이 도시 생활 중심의 매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도시를 중심으로 형성해가는 산업자본주의사회 특성이 반영되어 산업사회의 가치가 점차로 생활속에 수용되는 과정의 일면으로 보여진다. 또한 훈육방법 분석에서는 서구의 아동중심적인 양육관점으로 볼때 조선 부모는 기본에 따라 자녀들에게 심한 욕설이나 체벌을 가하는 성인중심적이어서 이를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음이 반영되었고, 그것은 아동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한 아동중심 훈육의 필요성의 역설로 연결시키는 노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학교제도연계 유목에서 입학준비에 관한 기사가 많이 다루어진 것은 1920~1930년대에 일제의 강압에 의한 것이기는 하지만 학력이라는 개념아래 학교라는 공교육기관이 처음 설립되어 일반으로 하

여급 학교에 대한 인식을 보급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보여진다. 여기에서 전통사회에서는 가정이 주로 담당했던 자녀교육기능의 일부가 학교라는 사회제도로 이양되는 과정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신문의 내용은 사실상 신학문적인 입장에선 지식층 중심의 양육관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일반대중이 수용하기에는 격별하고 생활과 유리된 바가 많은 것들이어서, 신문분석의 결과관으로 그 당시 각 가정내에서의 실제 아동양육의 모습을 파악하기에는 일면 어렵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그 당시 가정의 실제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다른 자료의 분석을 통해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본 분석을 통해 신학문의 지식층으로 부터 수용된 서구적 양육개념이 우리나라에 자리를 잡아가게 되는 과정의 한 단면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해방 이후의 신문기사 내용과 비교하여 본다면 좀더 분명한 변화의 과정을 규명해 볼 수 있으리라 본다.

본 연구가 갖는 제한점으로는 분석의 초점을 양육활동에 두었기 때문에 이런 양육활동 이면에 있는 아동에 관한 개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이후 분석에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내용분석 과정에서, 여러 주제가 복합적으로 실린 기사를 분류할 때 중심적인 주제판단에 있어서 연구자의 주관 개입소지가 있어 보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 설정이 필요하리라 본다.

### 【참 고 문 헌】

- 1) 김숙현(1973), 한국신문에 실린 여성에 관한 기사분석연구—1920년대와 1960년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신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 김옥련(1992), 유아교육사, 서울 : 정민사.
- 3) 류점숙(1987), 사소절에 나타난 아동훈육법고찰, 대한가정학회지, 25권 4호, pp 141-152.
- 4) ———(1989), 조선시대의 인간발달단계 및 그 교육내용, 아동학회지, 제10권 2호 pp 1~18.
- 5) 신용하(1981), 한국사회의 대상과 이론의 문제, 한국학보, 25권, pp 2~24.
- 6) 신영숙(1989), 일제하 한국여성사학회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7) 유안진(1980), 한국전통사회의 유아교육, 서울 : 정민사.
- 8) ———(1983), 한국인의 초기사회화과정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소.
- 9) ———(1985), 한국전통아동심리요법, 서울 : 일지사.
- 10) ———(1986), 한국전통육아방식,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부.
- 11) ———(1990), 한국 전통사회의 유아교육, 서울 : 서울대학교출판부.
- 12) ———(1992), 아동양육, 서울 : 문음사.
- 13) 유재천(1990), 한국언론과 이데올로기, 서울 : 문학과 지성사.
- 14) 이준우(1987), 한국신문의 문화적 기능 변천에 관한 연구—1920년 부터 1984년 까지의 조선일보·동아일보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5) 정보석(1990), 한국언론사, 서울 : 나남.
- 16) 조용만 외2인(1982), 일제하의 문화운동사, 서울 : 현암사
- 17) 차배근(1991), 커뮤니케이션학개론, 서울 : 세영사.
- 18) ———(1992), 사회과학연구방법, 서울 : 세영사.
- 19) 한국사회사연구회(1988), 사회사 연구의 이론과 방법, 한국사회사연구회 논문집 제10집, 서울 : 문학과 지성사.
- 20) ———(1990), 한국사회의 여성과 가족, 한국사회사연구회 논문집 제20집, 서울 : 문학과 지성사.
- 21) 한기연 외 3인(1982), 일제의 문화침략사, 서울 : 현암사.
- 22) Bigner, J.J.(1979), Parent-child relations-an introduction to parenting, N.Y.: Macmillan publishing, Inc.
- 23) Connor, R., T.B. "Johannis(1954), Intra-familial conception of the good father, good mother, and good child", J.of Home Economics, 46, pp187~

- 191.
- 24) Gilbert, L.A. & G.R. Hanson(1983), "Perceptions of parental role responsibilities", J.of Marriage and the Family, 45, pp 203~212.
- 25) Goonow J.(1981), Everyday ideas about cognitive development, in Social cognition, J.P. Forgas, London:Academic press Inc.,
- 26) Kessen W.(1979), "The American child and other cultural inventions", American Psychologist, 34, pp 815~820.
- 27) Nye F.I.(1976), Role structure and analysis of the family, London:Sage publication.